농가가족원의 시간사용구조 분석

이 기 영(서울대학교 교수) · 이 연 숙(고려대학교 교수) ·
김 외 숙(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) · 김 유 경(서울대학교 강사)

1. 연구 개요

한국방송공사와 통계청 등의 국민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통해 개인의 특성별 생활양식과 삶의 모습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획득되어 왔으나 이 자료에서 농업인의 생활에 대한 분석은 제한적이었으며, 농촌진흥청 등에서의 농촌 생활시간에 관한 연구는 조사규모 및 표집방법의 문제로 대표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.

따라서 농촌 대상의 전국 단위 생활시간조사를 통해 농업인의 생활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.

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전국에 거주하는 농업인 가구의 만 10세 이상 가족원으로, 제주를 제외한 전국 8개 지역(경기, 강원, 충북, 충남, 경북, 경남, 전북, 전남) 을 선정하여 각 지역당 주작목 별로 미맥 20가구, 시설원예 10가구, 축산 10가구, 과수 10가구의 비율이 되도록 하여 총 400가구를 조사하였다.

계절에 따른 농촌가정의 시간사용 변이를 고려하기 위하여 농번기와 농한기를 구분하여 2차에 걸친 조사를 계획하였으며, 1차 조사는 농번기 기간인 2005년 6월 17일부터 6월 30일에 실시되었다. 회수된 1100부의 시간일지표 중 1048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.

2. 연구결과

조사대상자들의 평균 개인유지시간은 8:51분으로 통계청(1999)의 결과(10:18)보다 매우 적었다. 통계청(1999)의 경우 수면시간이 7:47분, 식사 및 간식이 1:33분, 개인관리 0:51분으로 각각 20-30분 정도 본 자료(각각 7:17분, 1:01분, 0:29분)보다 긴 것을 볼 수 있다.

1999 통계청 조사결과(전국민 평균은 3:43분)와 비교해 볼 때 이들의 수입노동시간(6:22분)은 매우 길었다. 단, 조사시기가 농번기라는 점을 감안, 농한기 자료가 수비되면 추가 비교 분석이 요구된다. 수입노동 시간은 남성(7:19분)이 여성(5:21)보다 많으나, 가사노동과 합쳤을 때 총 노동시간은 여성(8:08)이 남성(7:42분)보다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, 이는 이전 통계청 시간조사나 기존의 농촌시간조사 결과와 일치한다. 가사노동 시간은 남성이 0:23분, 여성이 2:47분으로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. 전체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1:38분(가정관리 1:18분, 가족보살피기 0:20분)으로, 통계청 생활시간 조사(1999)의 결과-가정관리가 1:31분, 가족보살피기가 0:25분으로 총 1:56분)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.

마지막으로 여가 시간은 3:23분으로 통계청(1999)의 4:52분보다 적었으며, 시간에 있어서 남녀 차는 크지 않았다(남성 3:30분, 여성 3:17분).